佛心으로 지켜낸 '안국사'

화재전소 · 부대이전 등 겪어 폐사 위기에 처했던 군법당 통도사 중심으로 신축 나서

창원=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안국사 신축법당 부지에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시삽하고 있다.

경남 창원 지역의 포교 거점지가 될 안국사 기공식이 마침내 열렸다. 과거 군부대 호국법당이던 안국사는 여러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도심포교의 새 도량으로 불자대중을 찾아간다. 안국사는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서 문화와 복지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2월 4일 창원 의창구 중동 안국사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안국사는 경남 창원 육군 39사단 호국법당(구, 정심정사)이었다. 1965년 2월 군부대 식당을 개조해 군 사찰로 운영하다 전기누전으로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에도 젊은 군인들과 불자를 위한 안식처로 창고를 개조해 법당으로 삼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교활동을 지속해왔다. 이후 1989년 조계종과 통도사(구룡사)가 군 포교를 위해 약 4억 5000만원을 투자해 법당과 요사채를 신축하고 안국사를 개원해 군에 기증했다.

하지만 육군 39사단이 이전하면서 안국사는 존폐 위기에 처해지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직면했다. 조계종과 통도사는 안국사 존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스님들과 불자들은 안국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쳤다. 안국사 존치위원회는 종교와 교육 복지를 위한 용지를 확보, 2015년 안국사 사업을 통도사에서 주관하게 됐다. 기공식은 조계종과 불자들 그리고 통도사가 지켜낸 안국사를 다시 건립하는 시삽으로 의미가 크다.

기공식을 진행하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창원 안국사가 새로운 도전을 안고 출발하는 중요한 사찰임을 강조했다.

현문 스님은 "군 포교 전당으로 군 장병들의 안위와 건강을 기원해온 안국사가 폐사 고불식을 맞고 이제 지역사찰로 새롭게 자리하게 됐다"며 "안국사는 이 시대 도심 포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공유의 자리로 역할을 다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의 안녕과 국태민안,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위한 안국사로 성장하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안국사는 대지 1603.8㎡(486평), 연면적 2290.2㎡(694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된다. 안국사는 도심 포교 거점지답게 쉼터인 카페와 문화 공간이 있는 현대식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완공은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됐다.

안국사 주지 법본 스님은 조감도를 설명하며 현대적 문화 포교에 발맞춰 지역 도심 포교활동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법본 스님은 "안국사 신축에 대해 의논할 때 방장 성파 스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현대적 문화 포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발맞춰 기획하게 됐다"며 "방장스님께서는 평소 문화와 예술을 중요시하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불교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 지론에 맞춰 안국사는 지역 도심 포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법사교육원 학생 모집 안내

대승교화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법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사찰의 교임, 관리인 및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원 입학을 하시기 바라며, 전법사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 과	모집인원	교학과목	교학기간	수강시간	전형방법
전법사교육원	00명	① 불교기초교리 ② 불교의식	1년(2학기)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	서류심사

2.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구비서류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0. 1. 10(금) ~ 2020. 2. 10(월)	① 입학원서(교육원 소정양식) ※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 입학원서 : 종단홈페이지(다운로드) (http://www.taegojong.or.kr)	사진 2매 (3×4cm)
합격자 발표	2020. 2. 19(수)	개별통보	

3. 응시자격

구 분	항 목	비 고
자격사항	① 전국 사찰 교임, 관리인 ②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 ③ 연령 25세 이상의 전법사 희망	※ 범종단 차원 일반불자 수강 가능

4. 입학 및 개강일자

구 분	일 자	비 고
입학식 및 개강	2020년 3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및 일시 추후 개별통보	입학식 후 개강

5. 등록금 : 50만원(1학기)

※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 교육원

현판에 새겨진 경봉 스님 글씨

창원 정법사, 원통보전 현판식



현판을 교체한 원통보전 앞에서 정법사 대중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 정법사 원통보전에 새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판 글씨는 정법사 초대 주지였던 경봉 스님의 글을 새긴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정법사(주지 도문)는 2월 2일 경내 원통보전 앞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현판식에는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새 현판은 초대 주지였던 경봉 스님이 1976년 세납 84세 때 적은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주지 도문 스님은 "정법사 개원 후 처음 주지셨던 경봉 스님의 글을 현판에 새겨 새롭게 불사 한 것은 인연이 남다르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법사는 지하 공양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생일 축하연을 개최했다. 정법사는 매년 지역 어르신 및 신도를 위한 생일 축하연을 열고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정법사는 이날 산수, 고희, 회갑을 맞은 어르신 4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푸짐한 대중공양을 대접했다. 또한 무료급식소 보현의집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황원배 중식당 '리밍'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문 스님은 "경자년을 맞아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초발심으로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약수사, 새해 어르신 건강 기원

지역 요양병원 · 경로당 위로 방문


2월 3일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눈 약수사 불자들.

부산 사하구 약수사가 지역 요양병원과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약수사(주지 혜우)는 2월 5일 한우리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간식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혜우 스님과 불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병원에 들어섰다. 또한 중국인 접촉 및 해외 방문 등이 없었던 불자로만 방문단을 구성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하도록 했다.

약수사와 한우리요양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인연을 맺고 6년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약수사와 불자들은 매번 방문마다 간식과 선물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병원 관계자 및 보호자, 환자를 위한 간식 200인분을 준비했다.

이에 앞서 2월 3일 약수사는 지역 감천경로당 4곳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간식 및 풍물놀이도 제공했다.

약수사 혜우 스님은 "효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자주 뵙고 인사 올리며 작은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효를 실천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기원한다.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 인재불사, 불교 미래 밝혀"

선광사 · 염불공양회 장학금 자비행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이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불도 부산에서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전달이 잇달아 지역사회 훈풍을 불어넣었다.

선광사(주지 성문)는 2월 2일 경내 법당에서 '제1회 부산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성문 스님은 박은지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불교 언론종사자 자녀에게 각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성문 스님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불자인재로 미래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적은 금액이라 오히려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선광사는 매년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해 선물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전해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는 2월 3일 부산 범일동 염불공양회 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11명의 학생에게 100만원씩 총 1100만원이 전달됐다. 장학금은 염불공양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염불공양회는 25년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염불봉사를 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하정선 회장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을 때 더욱 보람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봉사하고 불자로서 맑은 세상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시회 성금, 소외이웃에 회향

부산 을파소 관음사 운곡 스님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이 부산진구청 구청장실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모습.

부산 을파소 관음사가 소외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은 2월 3일 부산진구청 구청장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지난달 29~30일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열린 운곡 스님 선명서화 전시와 무료나눔 행사를 통해 모은 것으로, 성금은 총 121만원이다. 선명서화전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특별히 개최됐으며 운곡 스님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전시기간 운곡 스님은 방문하는 불자와 시민들을 위해 이름을 직접 선명서화로 그려 나눠주며 경자년 새해 복을 기원했다.

선명서화는 이름 혹은 불명을 그림과 서체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운곡 스님은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명과 명호를 선서화로 작품화해 순회전시 및 포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운곡 스님은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외이웃을 위한 행사라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을 위한 전시와 작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